

조선신문학원 50주년

광 명은 이 겨레의 이상
 자유와 평화는 이 나라의 생명
 바르고 굳센 붓의 힘으로
 역사의 바퀴를 굴리나니
 보라 세기의 선도자
 보라 민중의 대변자
 이 집은 기자의 보금자리
 자라나 다 하리 내 사명
 (이은상 작사 안기영 작곡)

Lights are our brethren's idea;
 Peace and liberty the life of the land.
 With force of pen mighty and hard.
 Let us all turn the history's wheel.

Refrain--
 Look! We, the Forerunner of the ages;
 Look! We, the defender of the people.
 This is the den of journalists cradle
 Grow! And strive for the mission of ours!

이 노래는 시인이면서 언론인이었던 노산 이은상이 지은 '신문학원가(歌)'이다. 이은상은 조선신문학원의 원무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지난 4월 5일은 바로 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양성기관이었던 조선신문학원이 개원(開院)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조선신문학원은 1947년 4월부터 1962년까지 16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광복 후 언론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었으며 정규 대학에 언론학을 정착시키는 주춧돌을 놓았다. 그러나 이 학원은 1960년대 초에 폐쇄되고 말았으므로 올해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장



신문학회 제5기 졸업식(1952년 11월 8일). 피난시절 임시교사로 쓴 부산 영도의 부산공과
 학원 건물(사진 오른쪽) 앞에서. 맨 아래 왼쪽 끝이 강대원 사무국장, 한사람 건너가 최 준,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박복산,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홍종인 선생.



가 50주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으며 아무런 기념행사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지난 1995년 12월에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라는 제목으로 조그마한 책을 낸 바 있다.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언론학 논선' 제 9권으로 출간된 것이다.

백낙준과 언론

내가 조선신문학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그러나 마땅한 계기가 없어 본격적인 연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1995년 3월 25일에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연구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동안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발표했는데 연구소의 소장인 김학수(金學銖) 교수가 내 발표를 참관한 뒤에 두 가지를 제의했다.

하나는 이 내용을 보완하여 '언론학 논선'으로 출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에 관한 논문을 따로 한편 더 발표할 수도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두 가지를 다 하겠

다고 즉석에서 승낙했다.

김학수 교수가 내게 백낙준 박사에 관한 논문을 써 보라고 말한 것은 나의 발표 내용 가운데 백낙준 박사와 관련된 내용에 흥미를 느낀 때문이었다. 연세대학 출신인 김 교수는 물론이고 연세대학의 백낙준 박사 기념사업회에서도 백 박사가 조선신문학원의 운영에 참여했었다는 것과 50년 전에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에 신문연구실을 설치했던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김 교수에게 백 박사는 조선신문학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장준하의 '사상계' 발행에도 큰 도움을 준 사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상계는 원래 장준하에 앞서 백낙준이 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문교부의 산하기관이었던 국민사상연구원에서 발행한 '사상'이라는 잡지가 그 모체였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백낙준과 언론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나로서도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는 훌륭한 교수들이 많은데도, 그 학교를 상징하는 인물인 백낙준과 언론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연세

대학에 신문연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연세대학교는 관계가 없는 내가 밝혀낸다는 이유로 더욱 재미가 있었다.

백낙준이 조선신문학원의 운영과 사상계의 발행에 관련을 맺게 된 것은 그의 학문적 배경과도 관계가 있음을 논문집필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는 1913년부터 중국에 유학하면서 중국의 계몽사상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양계초(梁啓超)의 변법자강(變法自強) 사상을 접하고 그가 중국의 정치와 개혁운동에 끼친 영향에 감명을 받았다. 양계초는 한말 우리나라의 언론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백낙준은 중국유학을 하는 동안에 그를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연세대학에 조선신문학원의 '신문연구실'

백낙준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전개한 문서사업(신문·출판)을 주목했으며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출판물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나의 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백낙준 박사에 관한 논문은 이리하여 이해 5월 “용재와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했고 ‘백낙준 박사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논문집에도 수록되었다.

조선신문학원에 관해서는 그 후에 내 나름대로 자료수집에 힘을 기울여 앞서 말한 책으로 펴내었다. 조선신문학원은 1946년 1월 초순부터 광복산(郭福山)을 중심으로 11명이 모여 조선신문연구소의 창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광복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조선신문연구소는 ‘비판신문’ (편집주간 韓敬昌)이라는 주간신문을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1년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다가 그 해 12월 25일 서울 아서원에서 창립 발기회를 열고 ‘신문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족했다.

신문과학연구소의 본부는 서울 남대문로 2가 135번지 남한(南漢)빌딩에 있었고, 연희대학 안에 신문연구실을 두어 주요 신문·통신사의 간부를 중심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꾀하는 한편 신문을 비롯하여 라디오, 영화, 보도부문까지 조사·연구를 병행하면서 신문기자 양성에 주력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남한빌딩은 현재의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국립중앙도서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도서관의 옆 건물이었다.

그런데 연세대학에 ‘신문연구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신문학원 개원과 때를 같이하여 1947년 4월에 창간된 ‘신문평론’ 34쪽에 실린 광고에 나타나 있다. 이 광고는 남대문구 2가 135번지 남한빌딩에 ‘신문과학연구소’의 총무국이 있고 연희대학 구내에 신문연구실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신문과학연구소의 총무국은 바로 조선신문학원의 사무소이기도 했다.

초기의 신문학원은 요즘의 언론대학원과 비슷한 위상이었으나 희소가치는 더 높았던 기자 양성기관이었다. 그러기에 신문학원의 학생모집 또는 졸업에 관해서 당시의 신문에서 기사화해서 보도했으므로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당시의 교수진과 학원 운영의 실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문에서 이 학원의 기사를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신문에 실린 학생모집 광고를 찾아내어 학원 운영의 흔적을 추적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官報)’에 실린 언론인의 명단도 조사하여 혹시라도 신문학원 출신이 있는지를 알아내려 했다. 1967년 12월 11일자 관보(제4820호)에는 465개(일간 43, 통신 10, 주간 79, 월간 333)의 언론기관에 소속된 언론인 4,503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듬해인 1968년 7월 23일자 관보(제 5006호)에는 411쪽에 이르는 분량의 기자 명단이 실려있는데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최종 학력이 신문학원으로 기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양성기관이었던 조선신문학원은 1947년 4월부터 1962년까지 16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광복 후 언론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었으며 정규대학에 언론학을 정착시키는 주춧돌을 놓았다.

재된 사람을 몇명 찾아내었다. 어쩐진 나로서는 정성을 기울여 만든 논문을 책으로 만든 것이다.

도움을 준 신문학원 출신

논문을 작성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있었다. 나는 신문학원에 다녔던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혹시라도 논문 집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졸업생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없는가를 물어보았다. 원로 언론인 오소백 선생, 김동철(전 이화여대) 교수, 광복산 교수의 아들인 광동성(중앙대학교 교수) 같은 분이 있었으나 별다른 자료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도움이 되었던 분들도 있었다.

박소리(朴唎里·본명 朴承奎) 선생은 신문학원의 제3기 졸업생인데 졸업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3기 졸업생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는 입학시험 문제와 졸업장, 그리고 강의 노트까지 가지고 있었다.

강대원(姜大元) 선생은 신문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했던 분인데 1957년 1월 11일에 창립된 관훈클럽에 3월 8일자로 입회한 초기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부산 피난 시절에 조선신문학원이 서울신문학원으로 이름을 바꾼 후인 1952년 무렵 신문학원 학생들이 부산 영도(影島)에 있던 임시교사 부산공과학원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과 1956년 무렵 대한공론사(The Korea Republic)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동아방송 뉴스 부장과 KBS 심의위원을 역임한 신상현(申相鉉) 선생은



제9기(1955년 3월 입학생) 졸업식. 단상에 선 사람은 홍중인.

1956년 겨울에 신문학원생들이 서울신문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에 편집국장 고재경(高濟經)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내 책에 수록했다.

동아일보의 출판국 국장대우였던 박용윤(朴容允) 선생은 신문학원 사진과를 수료한 분이다. 그는 나에게 언론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신문학원에 관한 논문을 써 보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다. 내가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한 부 전해주었더니 그는 특별히 금일봉을 내놓으면서 연구를 독려했다.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의 연구비나 언론기관의 원고료가 아니라 개인이 주는 연구비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신문학원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어떤 특별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닐텐데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신문학원의 존재와 역할이 망각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연구를 후원하고 나를 격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책의 머리에는 박소리, 강대원, 박용운 세분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두었다. 그런데 박용운 선생은 아직도 신문학원에 관해서는 더 밝혀내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 논문을 퇴역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인회보'에 전재할 것을 권유했다. 논문을 보고 자료를 제공할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올해 2월 1일자 '대한언론인회보'부터 내 논문을 전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신문학원에 관한 의견이 있거나 자료를 소장한 사람들은 연락해 줄 것을 바란다라는 '알림'을 실었다. 박용운 선생의 예측은 들어맞았다. 6월 어느 날 박소리 선생의 편지가 한 장 날아온 것이다. 신문학원에 관한 자료가 더 있다는 것이었다.

박소리 선생과 '조선신문학원 요람'

박소리 선생은 1992년 무렵에 계훈모 선생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나는 그때 관훈클럽의 출판사업을 맡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관훈클럽에서는 나와 계 선생님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레스센터 뒤쪽으로 걸어 나오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있는 무교동 현대개발산업주식회사 동관 건물 8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다. 이 건물은 현대그룹 소유의 빌딩인데 나와 계훈모 선생은 이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출판 사업을 진행했다. 언론 전문잡지 영인작업(철필, 호외, 찌날리즘, 신문평론)과 '기자 최병우 평전', '한국 방송관계 기사모음' 같은 책을 펴내는 한편 계 선생의 역저 '한국 언론연표' 제3집과 연표의 색인작업을 마무리지었다. '기자 정신영'도 여기서 만들었고, 관훈클럽의 사업은 아니었지만 최석채 선생 추모 문집 2권도 이 곳에서 편집했다.

박소리 선생은 이 사무실에 몇번 찾아와서 신문학원 관련자료를 빌려주었다. 그 자료들은 6·25 동란 때에 자료들을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갔었기에 남아 있었다고 말

했다. 그러나 신문학원에 관한 내 책이 나올 무렵에는 계훈모 선생이 은퇴한 뒤였고 자연히 박소리 선생의 소식도 끊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대한언론인회보에 조선신문학원에 관한 내 논문이 실린 것을 보고 박소리 선생께서 연락을 하신 것이다. 지난 6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박 선생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다.

그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1950년 4월 신문학원 창립 3주년의 시점에 발행된 '조선신문학원 요람'이었다. 14쪽의 팸플릿인데 이 학원 3년간의 연혁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칙을 비롯하여 강사진, 강좌 과목, 그리고 제 1회와 2회 졸업생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나는 독립신문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서재필 선생의 유품들을 조사하다가 1947년판 '신문학원 요람'을 발견했다. 1995년 12월의 일이었는데 그때는 마침 나의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는 이미 조판까지 끝낸 상태로 출판사에서 인쇄에 넘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서재필 선생의 유품 속에서 신문학원의 학칙과 교과과정, 강사진 등이 들어 있는 요람을 발견한 것이다. 며칠만 늦게 찾았더라도 논선에 수록되지 못했을 것인데 참으로 적당한 때에 귀중한 자료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책을 제작 중인 나남출판사에 연락하여 새로 발견한 교과목을 집어넣었다." 독립신문 100주년 기념 "서재필과 독립신문 전시회"에 관한 전시회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 1996년 5월호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박소리 선생이 가지고 나온 요람은 서재필 선생의 유품에 섞여있던 요람보다 3년 뒤에 발행된 것이었고 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50년 4월 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신문학원 3주년 개원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교가를 합창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

**1967년 20주년 기념식 이후 신문학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
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년 뒤인 1969년 11월 중앙대학교에
신문방송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신문학원은 이 연구소에 흡수되었다.**

면 신문학원에는 교가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었다.²⁾ 과연 3주년에 발행된 '요람'에는 교가가 실려 있었다.

신문대학 설치를 목표로

이 요람을 보면 신문학원은 장차 신문대학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최고 협의기관으로 이사회 격인 원무위원회(院務委員會)를 구성했음도 밝히고 있다. 원무위원은 광복산을 비롯하여 개원 이래 3년간 참여해 온 교무위원 이순탁(李順鐸), 설의식(薛義植), 이병기(李秉岐) 세 사람과 언론인으로 김동성(金東成), 박중화(朴鍾和), 이은상(李殷相)을 추가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다. 교무위원은 개원 이래 강의를 맡아온 전홍진(全弘鎭), 임병균(林炳均), 김기림(金起林), 박기준(朴奇俊), 강한인(姜漢仁) 5명이었다.

1947년 4월부터 수업을 받은 제1기생은 1일 3시간 수업으로 6개월 과정의 전수과(專修科)였으나 제2기생부터는 1년 수업의 본과생을 모집했는데, 1948년 9월초에 학제개혁을 단행하여 본과 2년과정, 전수과 1년과정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수업시간도 하루 5시간으로 늘렸다.

창립 3주년을 맞은 1950년 3월에는 멀지않은 장래에 신문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또다시 학제를 바꾸었다. 새로 제정된 학칙 제1조는 "본 학원은 신문학과 아울러 정치학, 경제학, 문학에 관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함을 목적"한다고 밝히면서 2년제 본과를 단기의 고급학부(學部)로, 1년 전수과를 전공부(專攻部)로 폭을 넓히고 학부에는 정치, 경제, 문예 전공과를 두고 전문

적인 기자와 평론가를 육성하도록 했다.



유능한 인재들 배출

이와 같이 1950년 4월부터는 정규 대학수준의 학제를 마련하고 이 해 6월 11일에 제 5기생의 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2주후에 6·25동란이 일어나 대학으로 발전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1952년 4월 피난수도인 부산시 남항동(南港洞) 2가 1279번지 영도 종점에 있는 부산무선기술학교 교사를 빌려 서울신문학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다시 문을 열었다. 전시였으므로 수업기간은 아간 6개월로 축소했고 정원은 50명이었다.

신문학원 졸업생 가운데 알려진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 전체적인 명단이 밝혀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 요람에는 제 1회와 2회 졸업생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3기까지의 신문학원 입학인원과 졸업인원은 <표>와 같다. (그 이후의 운영 상황은 정진석,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 참조)

제1기 졸업생들 가운데 안정모(서울경제 부사장), 설한준(동양통신 국제국장, 대구 MBC사장), 백광하(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정팔(KBS 이사장) 같은 사람은 언론

계에서 크게 활약한 사람들이고, 김영수는 극작가로 대성했다. 제2기의 김용호(중앙일보 편집위원), 오소백(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여러신문 사회부장, 부국장), 김정태(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두순(대한일보 편집부국장, 합동통신 이사)도 언론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월준은 50년대에 잡지인으로 크게 성공했다. 윤남한은 중앙대학교 교수로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언론학 교수로는 김동철(이화여대), 팽원순(한양대), 최종수(광주대) 같은 분이 이 학원에서 공부한 분들이다.

20주년 넘기고 중앙대에 흡수

신문학원은 1956년 4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오랜 숙원이던 신문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단법인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교사를 신축하려는 발기 모임도 가졌으나 역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의 학원운영에 관해서는 '조선신문학원의 기지양성과 언론학연구'에 밝혀두었다. 이 책에는 신문학원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62년 여름 방학 이후에 이 학원도 문을 닫고 말았으며 광복산은 청량리 홍릉에 있는 자택에 사단법인 서울신문학원 사무국'이라는 조그마한 간판을 걸고 학원의 재건을 꿈꾸면서 신문주간에는 학원 명의의 행사를 가졌다. 광복산은 그 후로도 때때로 단기의 신문학 강좌, 신문사나 방송국 등의 요청에 의한 출장 강의, 그리고 몇몇의

연구생을 지도하면서 창립 20주년까지 혼자 버텼다. 1967년 4월 3일에는 서울 신문학원 20주년 기념식과 '우리나라 언론 선구자 추모강연회'를 신문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기념식에는 공보부장관 홍종철을 비롯하여 언론계 인사 여러 명이 참석했고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임영신(중앙대 총장)이 광복산에게 공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신문학원은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마지막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967년 20주년 기념식 이후에 신문학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학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년 뒤인 1969년 11월 중앙대학교에 신문방송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신문학원은 이 연구소에 정식으로 흡수되었고 신문학원 출신은 이 연구소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광복산 교수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이었으며 새로 설립되는 신문방송연구소의 소장을 맡았으므로 임영신 총장의 승낙을 받아 신문연구소의 학칙에 신문학원 졸업생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가 책을 쓸 때에도 그러한 사실을 들은바 있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에게 문의해 보았으나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연구소의 명

(표) 신문학원 입학 및 졸업생 현황

	입학	입학 인원	졸업생	졸업식	학 제
1기	47. 4. 5	정규생 52, 청강생 16	35	47.10.22	6개월 전수과
2기	47.10.22	정규생 68, 청강생 약간	39	48. 9.23	1년 본과
3기	48.10.	본과, 전수과 63	19	49. 9.10	2년 본과 전수과 1년
4기	49.10.			52.11. 8	보도사진과 신설
5기	50. 6.				6.25동란으로 수업 못함
5기	52. 5.	전수과 50		52.11. 8	부산서 5기생 다시 모집

* 4기생(서울 입학)과 5기생(서울-부산 입학)의 졸업식 부산에서 동시에 가짐.



〈왼쪽〉 학원 창립 10주년 유공자들. 오른쪽부터 광복산, 전홍진, 백낙준, 이병기, 최준. 〈오른쪽〉 신문기자 아카데미 제1회 강좌. 1954년 3월 26일 개강했다.

청도 1983년부터는 언론연구소로 바뀌었다. 광복산 교수는 1970년 12월에 타계했고, 그 후임 최진우 교수도 타계했으므로 신문학원 관련 서류를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소리 선생이 광복산 교수의 미망인이며 신문학원 제1기 졸업생인 조매리(趙梅里) 여사를 만나 1969년 11월에 발송한 초청장을 찾아내었다. 이 초청장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의 창설과 중대신문 500호를 기념하여 자축 파티를 연다는 내용의 초청장과 함께 광복산 교수의 명의로 신문학원 졸업생들에게 보낸 다음과 같이 감회어린 인사장이 있었다.

“이제 도라보면 우리나라 신문학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여러 동학들도 일찍 신문학을 연구한 선배구실을 하계끔 되었음을 자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학원의 시대적인 사명은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개와 유서깊은 '신문학원'이란 그 이름 또한 여러분의 '학적(學籍)'을 기리 보존하고자 지난 10월 중앙대학교에 신문방송연구소가 개설됨을 기회로 임영신

총장님께서서는 신문학원을 여기에 흡수하여 주실 것을 쾌히 승낙하시는 규정을 '연구소칙(研究所則)'으로 정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문학원 졸업증명서'는 앞으로 중대 신문연구소장의 명의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중대 동문의 일원으로 영구히 남아있게 되었으며 임총장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도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문학원을 흡수하여 발족한 신문방송연구소의 발족 기념과 중대신문 500호 기념 자축파티는 1969년 12월 5일 오후 6시 구 신문회관 3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광복산 교수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주

- 1) 정진석,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 언론학 논문 9,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96, p.30.
- 2) 정진석, 앞의 책, p.36: 동아일보, 1950.3.24. "신문학원 개원, 세동맞이 기념" 